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이 만 2세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조우리¹⁾ 황혜정²⁾

요약

본 연구는 법정 저소득 가정의 만 2세아와 어머니 50쌍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과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 수준을 살펴보고, 영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 수준은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이영, 198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저소득 가정 만 2~3세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은 김영태, 성태제와 이윤경(2003)이 제작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하위영역 중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이 가정환경자극 수준 중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순이었다. 둘째, 본 연구 대상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이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일반 영아의 어휘력이나 생활연령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력 발달 연령의 개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용 어휘력이 표현 어휘력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은 가정환경자극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넷째,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 어휘력에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표현 어휘력에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영아의 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저소득 가정, 환경자극, 수용언어, 표현언어, 어휘력

* 본 연구는 2010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1) ㈜동심 연구원

2)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영아기는 언어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Hoff, 2005)로, 이 시기의 어휘력은 문해의 뿌리로서 언어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영아의 언어는 크게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로 나누어진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하는 수용어휘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낱말이나 구문으로 만들어내는 표현어휘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능력은 아니지만 각각의 능력에 있어 다른 발달을 보인다.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와 문헌들은 영아기의 듣기능력보다 산출능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영아의 듣기능력은 산출능력보다 먼저 발달되며 음성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Werker & Tees, 2005). 영아는 출생 시 이미 많은 소리를 듣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본격적인 언어발달은 영아가 양육자와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영아는 생의 초기부터 부모 및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주 어린 시기부터 문자를 접하며, 특히 부모와 함께 책읽기를 통하여 어휘수와 단어의 재인 능력을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Bloom, 1998). 영아의 언어발달은 영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성인이 적절한 반응을 해줄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아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요구를 타인에게 표현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받게 되면 영아 자신이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며, 다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싶어진다(이지현 외, 2009). 영아는 10개월 경 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여 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영아들은 모국어의 어휘뿐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까지 습득하게 된다. 영아기부터 시작된 어휘력은 유아기를 거쳐 급속히 증가된다(Sene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

영아의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 영아와 성인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는데(Hart & Risley, 1992),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3세 이전 언어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영아의 어휘습득은 성인이 주도하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영아와 성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영아의 언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영아의 어휘 사용을 강화할 뿐 아니라 영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어휘발달을 촉진한다(이지연·이근영·장유경, 2002). 특히 영유아의 학습을 격려, 지원하는 부모의 행동이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되는 과정환경은 영아의 언어적 발달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영, 1980; 장영애, 1997).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의 과정환경이 빈번할수록 영아의

언어적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적 민감성이 높은 어머니는 영아의 행동에 반응적이고 영아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영아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도록 주의를 끌어 유도하고 영아의 의사소통적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즉 영아의 말과 행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어적 피드백이 많았는데, 그 결과 9개월에 언어적 민감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13개월에 보다 많은 언어를 이해하였다(이지연 외, 2002).

그러나 가정의 낮은 소득 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스트레스, 유해한 물리적 환경, 척박한 사회 인적망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은 자녀를 위한 인지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Gray, 1995). 가정의 소득 수준은 빈곤한 환경은 물론 부모의 인지 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학습기회를 상실케 하여 어린 나이부터 열악한 인지적 자극 환경에 처하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의 전반적인 영역 즉, 신체적 건강, 인지능력, 언어능력, 정서행동발달,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oks-Gunn & Duncan, 1997). 특히 영유아기와 학령초기 빈곤 환경은 가정환경의 질과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압박과 고통은 부모의 심리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자녀와의 온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발달에 효과적인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크게 드러나고 있다(김경희·황혜정, 1998).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겪는 초기 빈곤 환경은 아동의 이후 인지적 발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미·곽금주, 2007; Brooks-Gunn, Klebanov & Duncan, 1996).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그들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것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의식주와 같은 기본생활비의 지출에 부담을 가지므로 교육 투자 수준을 낮추게 되고 그 결과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력성취 수준이 저하된다(Becker & Tomes, 1986). 저소득 가정 부모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육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육아의 기본인 아이를 혼자 집에 두지 않는 것조차 지키기 힘들고, 더하여 영아기 때부터 칭찬을 드물게 하고 체벌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올바른 언어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정미라·곽은순·윤장숙, 2007),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양육방식은 순환적으로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Leod & Shanahan, 1993).

중류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조사한 국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등 대부분의 하위 요인이 중·상위 수준이었다(이수연, 2002; 이영·신은주·나종혜, 1994). 반면, 저소득 가정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이영, 신은주와 나종혜(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성,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일상생활에서 자극의 다양성은 중위 50%,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는 상위 2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는 하위 25% 수준으로 나타나, 자극의 종류에 따라 수준이 차이를 보였다.

위의 연구들을 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영아가 접하는 질적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층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의 영아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인지적·언어적 자극을 덜 받고 있으며 보다 낮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므로 인지적·언어적 발달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회화 관점에서 부모의 행동은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은 많은 연구들에서 핵심 주제였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아동의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지호, 2007; 이지연 외, 2002). Hart와 Risley(1995)는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층 아동과 교수의 자녀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어휘 성장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런 차이가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어머니와 상호작용 경험에서 질과 양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은 아동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Morrison(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민감성과 인지적 자극이 언어발달의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저소득층과 중류층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출생에서 4세까지 4년의 종단연구를 한 Bee 외(1982)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질적 수준이 언어와 인지발달의 가장 큰 예언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적지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영아의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36개월이 되었을 때 저소득 가정 영아의 수용어휘가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Pan 외(2004)는 Early Head Start에 참여한 저소득층 105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2, 3세 때 언어능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영아의 언어점수가 높았고, 대상영아의 2세 때 CDI(Child Development Inventory) 점수가 2~99점으로 나타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2세 때의 언어능력은 3세 때의 언어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Claire와 Katherine(2002)은 아동의 초기 문해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조 분석한 결과, 가족의 소득 수준이 아동의 읽기 능력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유아가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정문해 환경이 다르게 제공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소현아, 1999; Chaney, 1992; Gray, 1995), 저소득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와의 문해 활동을 적게 하고(황현이, 2005; Gray, 1995), 유아기 자녀를 위한 적절한 그림책을 적게 소유하거나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빈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소현아, 1999; 황현이, 2005). 반면 저소득 가정 유아의 어휘력은 책읽기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감정과 가정의 문해 자원이 많을수록, 부모와 함께 책읽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신혜영·김명순, 2008). 이는 가정에서 유아가 부모와 책 읽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자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유용한 문해 자료들이 많으며, 부모가 문해에 대해 긍정적 태도들을 지니고 있는 경우 유아의 언어발달이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enechal & LeFevre, 2001). 따라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는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부모부재 및 부모의 무관심, 부족한 가정문해환경 및 부모의 특성 등으로 인해 중류가정의 영아보다 저조한 언어능력을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어휘력 수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그 외 가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하위 자극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영유아의 어휘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을 발견하는 것은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이끌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 2세아가 속해 있는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과 영아의 어휘력 수준을 살펴보고,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저소득 가정 영아의 가정환경 특성 및 어휘력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저소득 가정 영아의 어휘력 및 언어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가정환경자극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어휘력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과 만 2세아의 어휘력 수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이 만 2세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의 저소득 지역 3개 동사무소에 등록된 법정 저소득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이 있는 차상위층 가정의 만 2세아와 그들의 어머니 50쌍이었다. 연구대상 영아는 남아 24명과 여아 26명이며, 평균월령은 32.6개월이었다(표 1 참조).

〈표 1〉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영아의 수와 평균 월령

	남	여	계
영아의 수	24 (48.0%)	26 (52.0%)	50 (100%)
평균월령	33.1개월	32.1개월	32.6개월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6-30세가 19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가 18명(36.0%), 36-40세가 13명(26.0%)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36명(7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는 각각 8명(16.0%), 6명(12.0%)이었다.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45명(90.0%)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과 기타가 각각 2명(4.0%), 전문기술직 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가정환경자극검사

저소득 가정의 가정환경은 Caldwell과 Bradley(1979)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0~3세용 가정환경자극 검사(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를 이영(198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OME은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6문항,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 9문항,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5문항,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6문항, 아동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8문항,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11문항,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HOME은 검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와의 면접을 통하여 측정하며, 어머니의 응답 뿐 아니라 면접 중 어머니와 영아를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 별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채점하며, 최소 0점에서 최고 4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환경자극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3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HOME의 하위변인과 신뢰도 계수

하위 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1.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6	.53
2.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	9	.47
3.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5	.31
4.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6	.57
5. 아동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8	.32
6.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11	.78
전 체	45	.83

나.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영아의 어휘력은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EVT는 김영태, 성태제와 이윤경(2003)이 개발한 검사로 만 2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대상자의 어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REVT는 수용어휘능력을 평가하는 185개의 수용어휘검사 문항들과 표현어휘능력을 평가하는 185개의 표현어휘검사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어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6.7%), 형용사 및 부사 19개(10.3%)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어휘 문항은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4%), 형용사 및 부사 21개(11.3%)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의 품사별 문항 구성

품사	수용 어휘력		표현 어휘력	
명사	98개	(53.0%)	106개	(57.3%)
동사	68개	(36.7%)	58개	(31.4%)
형용사 및 부사	19개	(10.3%)	21개	(11.3%)
계	185개	(100.0%)	185개	(100.0%)

REVT는 표현어휘 검사를 먼저 실시 한 후 수용어휘 검사를 실시한다. 표현 어휘력의 검사방법은 검사자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유도질문을 하고 영아가 목표어휘를 산출하도록 한다. 검사자 간의 일관성있는 검사를 위해 목표어휘별 질문형태는 검사지에 표시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최대 3번까지 반응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첫 번째 유도 질문에 대한 영아의 반응이 정답과 유사한 경우로 영아가 정답을 모르기보다는 비슷한 말로 답변했거나 질문의 초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유추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반응시간은 약 10초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반응하지 못하면 오반응으로 처리한다.

수용 어휘력에 대한 검사방법은 검사자가 4개의 보기 그림을 보여주고 목표어휘를 말해주면 영아가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며, 연속된 8문항을 전부 맞춰 기초선이 설정되면 기초선 이전 문항은 모두 맞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부를 검사하지 않고 검사실시요강에 따라 연속된 8문항 중 6개를 오반응하거나 무응답하면 오답처리되어 최고한계선이 나타난 경우 검사를 중단하였다. 검사시간은 수용·표현 어휘력을 모두 검사하는데 총 15~30분가량 소요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전에 동의를 얻은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의 저소득 가정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개별검사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받는 동안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에서 조용한 곳을 골라 실시하였다. 검사 도중 어머니는 영아의 검사에 관해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환경자극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지는 검사 후 즉시 회수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54쌍의 영아와 어머니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4가정의 결과를 제외하고 총 50쌍의 유아와 어머니의 검사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 정도를 보기 위해 가정환경자극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어휘력을 알아보기 위해 REVT 검사 후 표준화절차에 따라 환산된 등가연령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구하였다. 셋째, 가정환경자극과의 어휘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저소득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중 만 2세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저소득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수준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가정환경자극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환경자극 검사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HOME의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HOME의 하위영역	가능한 점수범위	M	SD	백분율
1.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0-6	3.76	1.41	62.7
2.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	0-9	6.42	1.57	71.3
3.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0-5	4.30	.71	86.0
4.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0-6	3.52	1.17	58.7
5.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 태도	0-8	4.34	1.21	54.3
6.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0-11	7.76	2.47	70.6
계	0-45	30.10	6.30	66.9

HOME의 총합의 평균은 가능한 범위 0-45점 중 30.10(66.89%)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이 3.76,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 6.42,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4.30,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3.52,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4.34,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7.76으로 나타났다. HOME의 하위영역별 문항수가 다르므로 백분율로 환산해 나타내보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이 86.0%(M=4.3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는 71.3%

($M=6.42$),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은 70.6%($M=7.7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은 62.7%($M=3.76$),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는 58.7%($M=3.52$),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는 54.3%($M=4.34$)로 나타나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중간 정도 수준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어휘력 수준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어휘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어휘력 검사의 하위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및 중위수를 구하였다(표 5 참조). 전체 연구대상의 생활연령은 평균 32.6개월이었으며, 수용 어휘력 연령의 평균은 점수범위 0-52개월에서 14.8개월로 나타났고 중위수는 11개월이었다. 표현 어휘력의 경우 점수범위 0-49개월에서 평균 연령이 10.1개월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는 2개월이었다. 표현 어휘력에 비해 수용 어휘력이 약 4개월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어휘력의 범위가 0개월에서 52개월, 표현어휘력의 범위가 0개월에서 49개월로 매우 넓게 나타난 것은 영아의 어휘력 수준에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 표현어휘력의 등가연령

구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0점 응답자수
생활연령	-	32.6개월	5.5	-	-
수용어휘력 연령	0-52	14.8개월	13.3	11.0	8
표현어휘력 연령	0-49	10.1개월	13.2	2.0	22

3. 가정환경자극과 어휘력 수준과의 관계

저소득 가정의 일반적인 인구학적변인, 환경자극 총점 및 하위영역과 대상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인구학적 변인 중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학력은 서열변인으로 간주하여 Spearman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대상 영아의 수용 어휘력은 어머니의 학력($r=.43, p<.01$)과 가정환경자극의 모든 하위요인($r=.32\sim.59, p<.05, 01$) 및 총점($r=.66, p<.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현 어휘력도 어머니의 학력($r=.52, p<.01$)과 가정환경자극의 모든 하위요인($r=.29\sim.59, p<.05, 01$) 및 총점($r=.64, p<.01$)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표 6〉 가정환경자극과 수용·표현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

		수용어휘력 연령	표현어휘력 연령
인구학적 변인	출생순위	.09	.08
	어머니의 연령	-.23	-.25
	어머니의 학력	.43**	.52**
가정환경 자극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53**	.43**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	.32*	.29*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55**	.49**
	어머니의 모성적태도	.38**	.49**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55**	.52**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59**	.59**
	총점	.66**	.64**
어휘력	수용어휘력 연령		.89**
	표현어휘력 연령	.89**	

* $p < .05$, ** $p < .01$

가정환경자극 검사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r=.59, p<.01$)를 보였고,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r=.55, p<.01$),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r=.55, p<.01$),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r=.53, p<.01$),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r=.38, p<.01$),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r=.32, p<.05$) 모두 수용 어휘력과 상관이 있었다.

표현 어휘력과 가정환경자극 검사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표현 어휘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r=.59, p<.01$)를 보였고,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r=.52, p<.01$),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r=.49, p<.01$),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r=.49, p<.01$),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r=.43, p<.01$),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r=.29, p<.05$) 모두 표현 어휘력과 상관이 있었다.

즉 가정환경자극이 풍부할수록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은 높았다.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이 풍부할수록, 적절한 놀이감이 구비되어 있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이 다양할수록,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와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은 높았다.

4.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

저소득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중 만 2세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변인들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이 관찰된 변인들을 단계선택방식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용 어휘력과 표현 어휘력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으며,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난 변인만을 영향력 크기 순서대로 표에 제시하였다.

<표 7> 가정환경자극이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 어휘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독립변수	B	β	t	R^2	R^2 변화량	F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1.83	.34	2.65**		.34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3.17	.29	2.36**	.48	.08	13.99***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2.99	.26	2.20**		.06	

** $p < .05$, *** $p < .001$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β)을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반응($\beta=.34$),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beta=.29$), 어머니의 모성적태도($\beta=.26$)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머니의 모성적태도는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 어휘력을 48% 정도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은 34%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8% 증가하여 42%의 설명력을 가지며, 어머니의 모성적태도가 첨가되어 6%가 증가하여 전체 48%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F값 13.99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가정환경자극이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표현 어휘력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독립변수	<i>B</i>	β	<i>t</i>	<i>R</i> ²	<i>R</i> ² 변화량	<i>F</i>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2.26	.42	3.42**	.44	.34	18.31***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3.81	.35	2.82**		.08	

** $p < .05$, *** $p < .001$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은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반응($\beta=.42$),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beta=.35$) 순으로 나타나, 표현어휘력 역시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는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표현어휘력을 44% 정도 설명하였다. 표현 어휘력 역시 수용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34%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여기에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10% 증가되어 전체 44%의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F 값 18.31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가정환경자극과 수용·표현 어휘력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 변인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 수준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 수준을 살펴본 결과, 평균 30.10점으로 HOME의 최고점수인 45점에 비교하면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자극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이 가능한 점수범위 0~6점 중 3.76점(62.7%),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는 0~9점 중 6.42점(71.3%),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은 0~5점 중 4.30점(86.0%),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는 0~6점 중 3.52점(58.7%),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는 0~8점 중 4.34점(54.3%),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은 0~11점 중 7.76점(70.6%)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류층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을 조사한 이영, 신은주와 나중혜(199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성,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일상생활에서 자극의 다양성의 모든 하위 요인이 상위 25% 이상의 수준이었던 것과, 이수연(2002)의 연구에서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인 어린이의 물리적 환경,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가 상 수준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 가정의 영아들이 중류층에 비해 낮은 수준의 환경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류층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물리적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성취가 달라진다는 Yeung, Linver와 Brooks-Gunn(2002)의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정이 중류층 가정보다 낮은 수준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가정들이 중류층 가정에 비해 가정환경자극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았다. 법정 저소득 가정으로 외부의 지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물리적 환경과 놀이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가나 이웃 등 외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언어학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환경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이봉주·양수·김명순, 2004).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많이 달라져 저소득 가정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 또한 TV 등의 대중매체나 부모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의 제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전체적인 환경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어린이에 대한 훈육태도는 4.34점으로 백분율 54.3%를 나타내었는데, 이 영역의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일을 자주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을 자주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 즉, 저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이고 칭찬에 인색하며 체벌에 의존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이순형·신양재·김영주, 1991; 정미라 외, 2007; Hoff, Laursen & Tardiff, 2002).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 가정일지라도 물리적 환경이나 놀이감,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자극 등은 다양하나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나 훈육 태도 등에서 자극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부모교육 등을 통한 양육행동 계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어휘력 수준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생활연령이 32.6개월인데 반해 수용 어휘력의 평균은 14.8개월, 표현 어휘력의 평균은 10.1개월이었다. 수용 어휘력이 표현 어휘력 보다 약 4개월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용어휘가 표현어휘와 함께 발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어휘가 표현어휘보다 앞선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Owen, 2005; Reznick & Golfield, 1992). 이는 영아가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의미와 연관된 음운들의 형태를 재생해야하는 반면, 수용어휘는 소리를 인식하고 그 소리의 단어가 사물이나 사건 등을 의미하는지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Huttenlocher, 1979).

우리나라 2~6세 영유아 621명을 대상으로 수용언어 발달을 살펴본 김영태, 성태제와 이윤경(2003)에 따르면 2세아의 수용언어 발달연령은 31.93개월, 표현언어 발달연령은 32.89개월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 영아 또한 평균연령이 32.6개월인 것에 비해 수용 어휘력의 평균이 14.8개월, 표현 어휘력의 평균이 10.1개월로 나타나,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한 영아의 언어발달이 뒤쳐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Duncan & Brooks-Gunn,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영아들이 중류층 영아의 평균 어휘력보다 1년 미만의 차이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본 연구에서 대상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연구대상 가정들이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으로 국가를 통한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환경에 놓여있어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평균 생활연령이 32.6개월인데 수용어휘력의 범위가 0개월에서 52개월, 표현어휘력의 범위가 0개월에서 49개월로 매우 넓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영아의 어휘력 수준에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 내에서의 개인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한 Malone(1963)과 Pavenstedt(196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같은 사회경제적 계층 내에서 보이는 개인 간의 차이가 계층 간의 차이보다 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Wells, 1985; 이세희, 2007, 재인용). 2세 이후의 개인차는 안정적이 되어 개인 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McCall(1981)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 외에도 같은 저소득층 내의 개인간 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 조기개입을 하더라도 개인차에 근거한 보다 정교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가정환경자극과 어휘력 수준과의 관계

저소득 가정의 일반적인 인구학적변인, 가정환경자극과 대상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환경자극의 모든 하위변인이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의 학력, 가족수 등 영아의 일반적인 배경이 영아의 어휘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장영애, 1997)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만이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과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경험의 다양성, 놀이자료, 언어적 환경, 환경의 물리적 측면, 발달을 위한 자극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장영애(199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가정환경자극검사를 통한 가정에서의 환경자극은 6개의 하위변인이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영아가 접하는 여러 환경들 중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환경자극이 영아의 어휘력 수준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영, 1980; 장영애, 1997; Bradey et al., 1989).

라. 저소득 가정의 가정환경자극이 만 2세아의 어휘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만 2세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정환경자극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은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인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의 세부요인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스스로 말을 건넨다’, ‘아이가 지저분하고 어지럽히며 노는 것을 허용해 주는가’, ‘아이의 성질이나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준다’, ‘아이에게 말을 시키거나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 목소리가 매우 다정한 느낌을 준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루만져 주거나 신경을 써 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높을수록 영아의 어휘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과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가정환경은 영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있어 개인차를 가져오는 환경변인임을 알 수 있다(이원영, 1982). Hart와 Risley(1995)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어머니와 상호작용 경험에서 질과 양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은 아동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Morrison(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민감성과 인지적 자극이 언어발달의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영아에게 언어적 자극을 더 많이 주고 더 반응적인 어머니를 가진 영아가 언어능력이 더 발달했다는 Wallace 외(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국내에서의 연구 또한 영아의 말과 행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어적 피드백이 많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이후 보다 많은 언어를 이해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이지연 외, 2002), 가정환경은 언어발달과 상관이 높으며, 연령이 달라져도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이영, 1980).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 가정의 많은 영아가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영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내에서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적절한 정서적·언어적 반응이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김금주, 2000; 이세희, 2007; 이유진, 2006; 임용순, 2002).

또한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은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는 어머니가 어린이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보다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할 때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인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자주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를 훈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잘못된 행

등을 했을 때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저소득 가정 만 2세아의 표현어휘력에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과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두 가지의 변인이 영향을 미친 반면, 수용어휘력에는 이에 더해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의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아이를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자주 살펴보는지, 의식적으로 아이의 발달에 신경을 쓰고 자녀가 놀이할 때 의식적으로 함께 노는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아가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주 들었던 단어를 듣고 반응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온정적으로 반응해 줄 때 영아의 수용어휘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법정 저소득 가정의 만 2세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가정이 많아 연구대상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대상자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어휘력검사와 어머니와의 면접에 의한 가정환경자극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1회의 검사로 영아의 어휘력과 가정환경자극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개별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영아의 하루일과를 관찰하거나 수회의 관찰 및 검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의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는 HOME은 1970년대 고안되고 1980년대에 번안된 도구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뀐 가정환경자극의 변인들을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도구 제작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HOME은 어머니와의 면접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가정일지라도 물리적 가정환경자극 수준은 그리 낮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나 훈육 태도 등 양육방식과 관련된 자극 수준이 낮았다. 또한 영아의 수용·표현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자극 요인도 어머니의 정서적·언

어적 반응,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등 양육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 방향이 물질적인 지원이나 물리적 환경의 향상이 아닌, 부모교육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생의 초기에 겪게 되는 가정의 빈곤은 자녀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통합적 개입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Head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영국의 Sure Start 와 같은 저소득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오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모델로 하여 We Start와 Dream Start 등의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나 관심이 적은 편이다. 어린 시기에 실시되는 중재 프로그램들은 영유아가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 이전에 예방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므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국가, 정부 차원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부모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1(1), 12-26.
- 김금주(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태·성태제·이윤경(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서울: 장애인 복지관.
- 김정미·곽금주(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28(4), 305-317.
- 김지호(2007).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현아(1999). 저소득층 어머니-아동간 책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김명순(2008).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4), 199-213.
- 이봉주·양수·김명순(2004). We Start 경기도 마을 복지·교육·보건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 이세희(2007). 저소득층 영아의 가정환경과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2). 영아의 단독놀이 행동과 가정환경자극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신양재·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3-128.
- 이영(1980). 3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환경과 발달수준과의 관계. 연세논총, 17(1), 249-264.
- 이영·신은주·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 가정과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영·신은주·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 저소득층 지역 비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3), 165-177.
- 이원영(1982).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 이유진(2006). 10~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및 어머니-영아의 상호반응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이근영·장유경(2002).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1), 131-146.
- 이지현·마송희·김수영·정정희(2009). 영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서울: 공동체.
- 임용순(2002). 한국 영아의 어휘 발달과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1997). 아동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학전 아동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4), 15-30.
- 정미라·곽은순·윤장숙(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 황현이(2005). 가정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제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 Bloom, L. (1998). Language acquisition in its developmental context. In W. Damon, D. Kuhn,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5th ed.) (pp. 309-370). John Wiley and Sons.
- Bradley, R., Caldwell, B. M., Rock, S., Ramey, C. T., Barnard, K. E., Gray, C., Hammond, M. A., Mitzchell, S., Gottfried, A. W., Siegel, L., & Johnson, D. L. (198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A collaborative study involving six

- sites and three ethnic groups in North America.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17-235.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and youth.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Brooks-Gunn, J., Klebaonov, P. K., & Duncan, G. J. (1996). Ethnic differences in children's intelligence test scores; Role of economic deprivation, home environment,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7, 409-422.
- Caldwell, B. M., & Bradley, R. H.(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Unpublished manual.
- Chaney, C. (1992). Language development, metalinguistic skills and emergent literacy in three-year-old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13, 485-514.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Gray, L, S. (1995). Taking from books by asking ques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0, 23-28.
- Hart, B., & Risley, T. (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96-1105.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Broodes.
- Hoff, E. (2005). *Language development* (3rd ed.).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Hoff, E., Laursen, B., & Tardiff, T.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231-252). Mahwah, NJ: Erlbaum.
- Huttenlocher, J. (1979). The semantic organization of some simple nouns and verb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18(2), 141-163.
- McLeod. J. D.,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s*, 58, 351-366.
- Morrison, L. (2004). Comprehension monitoring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reading.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1(1), 77-106.
- Owen, R. E. (2005).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이승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Pan, B. A., Rowe, M. L., Spier, E., & Tamis-Lemonda, C. (2004). Measuring productive vocabulary of toddlers in low-income families: Concurr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ree sources of data. *Journal of Child Language, 31*, 587-608.
- Senechal, M., & LeFevre, J. A., Hudson, E., & Lawson, P. (1996). Knowledge of storybooks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vocabula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3), 520-536.
- Senechal, M., & LeFevre, J. A. (2001). Storybook reading and parent teaching : links to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92*(3), 39-52.
- Werker, J. F., & Tees, R. C. (2005). Speech perception as a window for understanding plasticity and commitment in language systems of the brai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6*(3), 233-251.
-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논문 접수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2월 3일 / 게재 승인 12월 21일

·교신저자: 황혜정,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메일 jinhwang@kgu.ac.kr

Abstract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Impetus of Low-income Family o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bility of 2 Year Olds

Cho, Woo Ree Hwang, Hye J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factor influencing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level of 2 year olds from low income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0 pairs of 2 year olds and their mothers. Environmental impetus level of the low-income families were assessed by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 Lee, 1980) an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levels were measured by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Kim et al., 2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hysical environment, existence of playing material, mother's behavior as a mom, discipline against infant's action, and mother's subordinate level of affective and linguistic reaction were comparatively high in HOME's subordinate level. Diversity of the impetus in daily lives was the highest level among 6 subordinate elements. Secon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level of infants in this study turned out to be inferior to normal infants in the result of the prior study. In addition, receptive vocabulary level turned out to be superior to expressive vocabulary level. Thir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level of infant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home environmental impetus. Diversity of the impetus occurred in daily lives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correlation with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level of infants. Finally, receptive vocabulary level of 2 year olds in low income families were affected by mother's affective and linguistic reaction, discipline against actions of infants, and mother's behavior as a mom in order. And, expressive vocabulary level were affected mother's affective and linguistic reaction, and discipline against actions of infants in order. Therefore, mother's affective and linguistic reaction turned out to be subordinate element to have most influence on the vocabulary level of infants.

Key words: low-income family, environmental impetus, receptive language, expressive language, vocabulary ability